

[A+] 금융인 맞춤형도집회 첫째날 (증권) - 메시지 “인생”

하용조 목사 / 온누리교회 / 2005 / 페이지수 : 3

오늘 주제는 A+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힘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은 돈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또 돈으로 안되는 게 없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권력과 성도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 중에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돈과 많은 관련이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A+인생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는 인생

흔히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갖게 되고, 이혼 안하고 단란한 가정을 갖게 되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을 'A+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A+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아내, 자녀, 친구 등과 관계가 나쁘면 끝없이 고독과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외형적이고 실제적인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단계 높여 진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의미있는 인생을 얘기할 때는 외형적, 실제적, 환경적인 요소를 뛰어넘어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표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A+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 신체적, 환경적, 물질적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오히려 행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 얻고도 실패한 자가 될 수도, 모든 것을 이루고도 다 빼앗긴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A+ 인생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인생은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인생이면 역사를 만듭니다.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루고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과 연결되지 않고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뤘놓은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보는 관점

인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볼 때는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나를 볼 때는 내 내면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A+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과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와 어떤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스러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 만족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이 목마르고 자살할 정도로 허무한 까닭은 정신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육체를 만들고 있는 정신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자유함과 구원함과 충만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 상대적 종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소리없는 혁명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있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섭리이며, 섭리를 깨달으면 죽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순간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갑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영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늙는 것, 빼앗기는 것, 병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A+인생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건물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보기도 만지기도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생깁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 정리 임재금 기자 ljj14@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